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금씩 되찾는 일상

실천 수위 낮추자 종교계 집회 열고 프로야구 무관중 경기
"코로나19 안심단계 아니다" ... 클럽·술집 등은 경계해야

정부가 종전보다 완화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운동장에선 KIA의 프로야구 무관중 연습경기가 시작되고, 성당과 교회, 사찰에선 두 달 동안 중단됐던 미사와 예배, 법회, 템플스테이가 재개되는 등 사회 곳곳에서 서서히 일상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0일 "이날부터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되 실천 수위를 '고강도'에서 일부 집단시설 운영제한 등을 풀어주는 '완화된 형태'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교·유형·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4대 집단시설은 기존 '운영중단' 권고에서 '운영제한' 권고로 변경됐다. 해당 시설을 운영할 때는 출입 전·후 발열체크, 사람간 간격 유지, 공용물품 사용 금지, 환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 된다.

앞으로 성당과 교회에서 예배가 가능하지만, 신도간 간격을 띄우고 예배 전후 신도들이 모여 대화하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은 안 된다. 사찰도 마찬가지로, 헬스장 등 실내 운동 시설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어 미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 대교구는 23일부터 미사를 재개한다.

지역민에게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KIA의 프로야구 연습경기 시작과 함께 오는 5월 1일이면 시즌이 개막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앞서 11차례 자체 연습경기를 했던 KIA는 21일부터 KBO 연습경기를 치른다. 이날 오후 2시 챔피언스필드에서 삼성을 상대하는 KIA는 25일에는 당일치기로 대전 원정을 다녀온다. 이어 25일과 27일에는 NC와 각각 원정 경기, 홈경기를 치르게 된다. 연습경기 시작과 함께 KBO 2020시즌 개막 일정도 확정된다.

KBO는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

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21일 KBO이사회를 갖고 개막 일정을 확정한다. 5월 1일 개막이 유력시된다.

광주 증심사와 순천 송광사 등 전국 사찰의 법회도 두달여만에 재개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이런 결정을 전국 사찰에 하달했다며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5월 5일까지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자 같은 달 23일 모든 사찰에서 법회와 기도회 등 대중 행사를 중단한 바 있다. 4월 30일 예정됐던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도 한 달 뒤인 5월 30일로 연기했다.

불교계 대표 힐링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도 일부가 다시 운영된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사찰에서 개별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휴식형 템플스테이'만 다시 운영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사람간 만남이 주 목적인 클럽이나 술집에서 방역지침인 1~2m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긴 했지만, 국민 스스로 집단시설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코로나19민간전문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학교 의대 명예교수는 "완화된 거리두기는 공간확보나 손위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가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광주 30명, 전남 15명 등 총 1만674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13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청보리밭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20일 오후 전북 고창 공음면 학원농장에 조성된 청보리밭에서 푸른 보리가 봄바람에 흔들려 물결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재난지원금 5월 전국민 지급"

민주당 "정부 수용 분위기" ... 액수는 줄어들 듯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추진에 나섰다. 전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정간 입장차를 공식 해소하지 못했지만, 정부도 국회에 증액을 결정하면 고려하겠다는 선에서 사실상 수용으로 분위기가 잡힌 만큼 통합당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우선 높이는 모습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총선 때의 약속을 지키라'며 통합당을 몰아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며 "복지대책으로 잘못 생각하거나 여러 합리적 정책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다. 최단시간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빠른 지름길을 국회가 열어줘야 한다"며 "4월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야 압박과 함께 당정간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도 모색하고 있다. 4인 가구 100만원으로 논의 중인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80만원으로 액수를 줄여 지급하는 방안, 전국민 지급 후 소득 상위 30% 대상 재난지원금은 세금을 통해 다시 환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액수 조정 등을 거처더라도 당정간 이견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해 극채 발행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정부는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담회의에서 "금주 시작될(2차 추경안) 국회 심의에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소득 하위)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기준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코로나19'에 5·18 전야제 취소하니 극우보수단체가 금남로에서 집회를?

광주시, 집회 막기 행정명령
참가자엔 벌금 등 법적 조치

이용섭 광주시장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맞춰 금남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자유연대 등 이른바 극우·보수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해 5·18기념행사와 전야제까지 취소한 상황에서, 5·18에 적대적 감정을 지닌 보수단체의 집단 행동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참가자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집회가 열리면 코로나19가 지역 사회에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와 시가행진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정부를 비롯한 온 국민이 코로나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최근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5·18 40주년 기념식을 제외한 기념행사 대부분을 최소화하거나 연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5·18은 더는 정쟁의 도구 되서는 안 된다"며 "5·18의 진실은 보수와 진보 간 대립의 문제가 아닌데도 여전히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이념 갈등과 지역감정을 부추기려는 세력들이 있어 유감스럽다. 40주년을 맞아 반목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기다려도 오지 않는 광주 저상버스 ▶6면

굿모닝 예향 ▶18·19면

프로야구 오늘부터 연습경기 개막 ▶19면

#PlayByYourRules

The New A-Class Sedan & The New CLA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창간68주년
광주일보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문대로 1041(화정동)
 MB 인종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A 220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4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2.7km/ℓ(도심연비: 11.2km/ℓ, 고속도로연비: 15.2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35g/km · A 250 4MATIC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15kg, 자동7단), 복합연비: 11.6km/ℓ
 (도심연비: 10.4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48g/km · CLA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50kg, 자동7단), 복합연비: 11.5km/ℓ(도심연비: 10.3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배출량: 15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